



## 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  
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농림정책과

과장 김신재, 사무관 김동현  
(044-200-2231, 2232)

## AI 항원 검출 관련, 방역상황 긴급 점검

- 국무조정실장 주재 AI 상황점검·대책회의 개최 -

□ 정부는 국무조정실장(홍남기) 주재로 3월 18일(일) 9시, 정부서울청사(서울-세종-시도 영상회의)에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**AI 상황점검·대책회의**를 개최하여 방역대책을 논의했습니다.

\* 참석 : 농식품부·행안부 차관, 국방부·환경부·경찰청·질병관리본부 실·국장,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등

○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평택, 아산 등지에서 잇따라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최됐습니다.

\*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(17.11월~) : 확진 19건, 검사중 4건(평택, 양주, 여주, 아산)

□ 회의에서는 정부가 3월 16일 이후 선제 조치한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, 이동제한, 역학조사, 일제소독 등 초동방역상황을 재점검하고

○ 항원검출지역의 이동중지(7일간)외에, 일시이동중지명령 전국 확대(48시간, 제주 제외), 인접시군 특별 방역, 산란계 농장 계분반출 금지 등 추가적 방역강화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
○ 또한, AI 발생농가 및 살처분 농가의 잔존물 처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, 철새도래지 등 8대 방역취약 중점관리대상\*(32,382곳)에 대한 일일관리도 지속 추진키로 했습니다.

\* 철새도래지, 밀집사육지, 소규모농가, 전통시장, 가든형 식당, 종개상인 계류장, 계란집하장, 고령농가

-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작년 10월부터 선제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올해는 AI 발생이 현격히 줄었지만, 아직은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이 아니라고 전제하고,
- 관계기관 및 현장방역 담당자들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자세로 경각심을 갖고, AI가 종식될 때까지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